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인천 옹진군 백령면사무소에서 열린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강도형 해수장관, 서해5도 어장 순시·어업인 간담회 개최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예시. 해수부 제공◆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업인 대상 간담회 개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수산회(회장 정영훈)는 16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강도형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간담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02-589-460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